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 185 회

개회식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 1. 개식
- 1. 국기에 대한 경례
- 1. 애국가 제창
-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1. 개회사
- 1. 폐식

(사회 : 총무담당관 권주남)

(10시 22분 개식)

〇總務擔當官 權周男 지금부터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학원 의장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〇議長 金學元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는 우리 시 발전과 역사에 큰 획을 그어준 IAC 국제우 주대회와 제9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대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 었고 시민 대화합을 이끌어낸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된 것은 150만 대전시민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전발전의 큰 힘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5기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사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중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값진 성과들은 무엇보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온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라 500만 충청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상실감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실의에 빠진 대전·충청민을 대변하여 지난 11월 6일 결의 대회를 갖고 정부에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모든 지역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최근 환절기로 인한 신종플루의 확산이 점점 거세지면서 감염자수와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에서는 현 상황을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려감이 갈수록 높아져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신종플루 감염에 따른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 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0년 업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희망찬 미래와 비전을 준비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 올해를 총 결산하고 2010년 한해 살림살이를 알차게 계획 하는 중요한 의사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역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극대 화 되도록 꼼꼼히 살피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 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쁘신 중에도 의회 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總務擔當官 權周男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폐식)